

# “3년간 영업익 3배 성장... 와인문화 선도기업 자리매김”

## IPO 간담회

### 나라셀라

120개 브랜드, 1000종 공급권 보유  
독보적 브랜딩 능력 높은평가 받아  
10년 이상 장기거래 브랜드 46곳  
수요예측 거쳐 22~23일 청약진행

“나라셀라는 고품질의 와인을 최상의 상태로 보관·유통함에 있어 업계 최고 수준의 사업역량과 전문 인력, 인프라 등을 두루 갖춘 기업이다”

마승철 나라셀라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1990년 설립된 나라셀라는 칠레의 ‘몬테스 알파’를 단일 독점하는 수입사로 시장에 잘 알려져 있다. 나라셀라는 120여 개 브랜드, 10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와인의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라셀라의 와인 포트폴리오는 국내 와인 유통사 가운데 가장 폭넓게 구성돼 있다.



마승철 나라셀라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나라셀라

지난해 국내 와인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2019년 8000억원과 비교해 2.5배 커졌다. 국내 와인 시장 성장세와 함께 와인 수요자의 니즈는 점차 다양화·고급화 돼가고 있다. 나라셀라는 양질의 와인을 다양하게 갖추고 와인 보관 및 유통에 특화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나라셀라 매출도 지난 2019년 469억원에

서 지난해 1072억원으로 늘며 두 배 넘게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6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증가했다.

나라셀라의 독보적인 브랜딩 능력은 와이너리들이 자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주요 와이너리들은 업계에서 예외적으로 나라셀라에 독점 공급자 서한을 발급하며 높은 신뢰감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나라셀라와 거래를 지속하는 와이너리가 신규 와이너리에게 나라셀라를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파트너로 소개하는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나라셀라와 10년 이상 장기 거래를 유지하는 와이너리는 2022년 기준 총 121개 브랜드 중 46개 브랜드다. 이는 전체 거래 와이너리 중 38%에 달하는 수치다. 상장사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미개척·신규 와이너리와의 협상에 있어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나라셀라의 시장 장악력과 경쟁우위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몬테스를 포함해 총 10개 브랜드, 22개 와인 제품에 대한 독점 공급권을 확보한 나라셀라는 향후 우수한 와인을 생산하는 미개척 와이너리 발굴,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프리미엄 와인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나라셀라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기존 강점인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 지속 확대 ▲자체 리테일샵 강화 ▲판매채널 확대 및 다각화로 고객 접근성 제고 ▲도심형 물류센

터 구축으로 수도권 범위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물류혁신 ▲와인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마승철 대표는 “와인은 각 나라의 역사와 예술 등 다양한 문화가치가 녹아든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에 가장 부합하는 주류”라며 “상장을 계기로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 와인문화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나라셀라는 16일부터 이날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22~23일까지 일반 청약 받는다. 나라셀라의 공모주식 수는 145만주이며, 공모 희망 밴드는 2만~2만4000원이다. 총 공모 예정 금액은 290억~348억원 규모이며 내달 상장 예정이다.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아파트 완판 행진... 주택업계 ‘분양 채비’

성수기·마케팅·규제완화 맞물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청약  
9550명 몰려 경쟁률 최고 494:1

지난 1분기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신규 분양을 연기하던 주택업계가 최근 성공사례가 이어지면서 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올 초 서울에서 둔촌주공 마저 미분양을 걱정하고 수도권도 미분양이 늘어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변화된 환경에 대해 성수기 효과, 업계 마케팅 전략, 규제 완화 등을 꼽고 있다.

실제 1~4월까지 분양실적은 계획물량 5만4687가구 대비 71% 줄어든 1만5949가구에 그칠 정도였다.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주택수요가 늘면서 3월 들어 전국 미분양 물량이 소폭 줄었다. 청약수요가 일부 유망 지역 및 단지에만 쏠리는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분양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투시도.

가는 물론, 브랜드 및 단지규모 등을 고려한 선별청약이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1순위 청약마감미 이 어지자 업계도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6일 진행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121가구 모집에 9550명이 몰려 평균 78.9대 1, 최고 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착한 분양가, 트리플 역세권 단지로 많은 관심

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최근분양을 완료한 단지에서도 전 세대 계약 완료로 시장이 점차 변화하는 양상이다.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 컨소시엄이 지난달 분양한 ‘동탄 파크리츠’의 2차 660가구가 전세대 계약을 완료했다. 1차 물량 1403가구가 완판을 기록한 데 이어 2차도 완판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분양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단기간에 완판된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이다. 이 단지는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와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분양 관계자는 “침체된 분양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관건은 분양가와 입지”라며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한양증권 ‘브루킨즈 아카데미’ 발대

한양증권은 지난 16일 오후 여의도 본사에서 ‘브루킨즈 아카데미’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브루킨즈 아카데미는 증권 업계에 참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한양증권에서 출범한 대학생 싱크탱크 조직이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양증권

# SG증권발 투자 피해자, 집단 손해소 움직임

‘사기 피해자’ 입증 쟁점될 듯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을 비롯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등 다수의 법무법인들이 SG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에는 SG발 ‘사기’ 피해자 800여 명이 집단 대응을 위해 모인 오픈채팅방이 개설되기도 했다. 소송의 쟁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조재빈 변호사는 “사기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물이 어떻게 속였는지, 나아가 자신은 단순한 투자자로서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면서 “사실상 시세 조종 가담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 시세 조종 가능성을 염두해 뒀거나, CFD(차액결제거래) 투자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도 개인 정보를 맡겼다면 피해보상은 차치하고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라 대표 일당의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 현재 라 대표는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정거래를 하며 시세를 조종하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을 통한 이익 편취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그 다음으로 앞서 말한 ‘피해자’ 입증 관문이 남게 되는 것이다.

대건 소속의 공형진 변호사도 “이 사건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피해자들은 통정거래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CFD 매매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자기 투자금이 주가 조작 원금으로 쓰인 사실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부산·천안·담양에 AI 도시계획 R&D 적용

국토부, 시범적용 실증사업 대상 선정

부산광역시, 천안시, 담양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도시계획연구개발(R&D)기술 시범적용을 위한 실증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등 세 곳을 AI 도시계획 R&D 등 다양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수요 예측 등을 수행하고, 최적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범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15분 도시(부산), 콤팩트 시티(천안), 인구감소 대응 강소도시(담양) 등 지자체별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에 AI 기술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실증을 거쳐 기술의 정확성을 보완해 나가고, 해당 기술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및 프롭테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기술 실증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한 도시계획의 수립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 코스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코스콤이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IT취업 프로그램을 5년 연속 지원하기로 했다.

코스콤은 17일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코스콤이 후원한 취업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실전 온라인 마케팅 과정’이다. 교육이 곧 경력단절여성의 온라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전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신하은 기자